광주·전남 지자체 5곳 금고 이자율 기준금리보다 낮다

보성 1.45%, 광주 동구·영암·무안·화순 1~2%대…전국 평균 2.87%

한병도 의원 "지자체 금고는 공적 자산 운용 창구…효율적 운용해야"

광주와 전남 지자체들의 금고 예치금 이자율이 최대 3.5%포인트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 평균 금고 이자율은 2.87%로, 이보다 낮은 광주·전남 지자체는 14곳, 기준금리(2.5%)보다 낮은 광주·전남 지자체도 5개인 것으로 조사되면서 시·도민의 세금이 낮은 금리에 방치돼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고 선정 과정과 이자율 공개를 지시한 바 있어, 금고 관리와 관련된 지자체들의 향후 자치단체 금고 선정이 주목된다.

2일 한병도(민주·전북 익산시을) 국회 예결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의 금고 평균 이자율은 2.87%이었다.

그러나 평균 이자율은 밑돈 지자체는 광주시(2.68%), 광주시 동구(1.87%), 나주시(2.60%), 담양군(2.87%), 곡성군(2.82%), 구례군(2.80%), 고흥군(2.60%), 보성군(1.45%), 화순군(2.25%), 강진군(2.82%), 무안군(2.16%), 함평군(2.76%), 완도군(2.39%), 영암군(1.60%) 등이었다. 특히 광주시 동구와 보성군, 영암, 무안, 화순은 기준금리 조차 밑돈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을 밑돈 광주시의 경우 지난해 평균 금고 잔액이 6730억원이었지만 이자 수입은 180억원 수준이었다. 광주시 동구는 평균 잔액 1575억원, 이자 수입은 29억7900만원, 평균 금리가 가장 낮은 보성군은 금고 잔액 3480억원, 이자 수입은 50억5800만원에 그쳤다.

다만 지자체 금고 담당자는 이번 이자율 공개 결과가 은행과 지자체간 맺은 실제 이자율과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한 지자체 금고업무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연초와 연말 잔액의 평균을 내 이자수익으로 나눠 이자율을 계산한 방법으로, 이자율을 정확하게 뽑아내려면 1년을 기준으로 매일 금고 잔액을 더해 계산해야 한다"며 "실제 금고 이자율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고 이자율은 계약 형태에 따라 다르고 수시입출금, 정기예금에 따라 지자체 예산 특성에 맞게 각각 적용하는 금리가 다르다는 게 자치단체들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가 원칙인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에 대한 공개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당장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지방정부의 금고 선정과 이자율 문제를 전수조사해 공개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함께 금융기관이 금고로 선정될 경우 지자체에 출연하거나 지원하기로 제시한 금액인 협력사업비의 관리 강화 등도 요구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지자체 금고는 단순한 현금 보관 창고가 아니라 국민 세금을 굴리는 공적 자산 운용 창구"라며 "금고 이자율은 지방세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비공개로 국민 세금이 사실상 잠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자율 전면 공개와 협력사업비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도와 나주시의 '정책 비전 토론회'가 2일 오후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윤병태 나주시장을 비롯해 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지역 현안과 발전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나주를 에너지 수도로…전남도 정책 비전 투어

켄텍 중심 '한국판 실리콘 밸리' 조성·K-에너지벨리 완성 등 제시

전남도가 나주를 에너지 수도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나주시 정책 비전 투어'에 참석, "나주의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을 토대로 에너지 허브 육성·영산강 르네상스를 본격화해 에너지수도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 비전투어는 김영록 지사와 윤병태 나주시장, 이재태·최명수 전남도의회 의원 등 100여 명의 도민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남연구원은 이날 비전투어에서 나주시의 발전 잠재력과 미래 핵심 비전으로 ▲한국에너지공대(켄텍) 중심의 '한국판 실리콘 밸리' 조성 ▲국내 최대 K-에너지밸리 완성 ▲영산강 르네상스 2.0 실현 ▲마한과 천년고도를 잇는 2000년 역사·문화도시 조성 ▲목사골 명품 농식품 생태계 구축 ▲첨단 그린바이오 산업 선도 도시 구축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포함한 계획인구 5만 도시 달성 ▲'나주형 교육도시' 조성 ▲전남 서남권과 호남 전역을 잇는 교통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

한국판 실리콘밸리는 켄텍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에 에너지 스타트업 300개 창업이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AI데이터센터 구축을 통한 K-마이크로그리드 실증을 선도하는 한편, 1조 2000억원 규모의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유치하는 구상안이 포함됐다.

에너지·전력 맞춤형 산업용지 공급으로 기업 1천개 입주, 오는 2030년 열릴 '에너지 올림픽(세계에너지총회)' 행사를 유치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에너지 중심도시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안은 K-에너지밸리에 담아냈다.

김 지사는 이같은 잠재력과 비전을 바탕으로 나주를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영산강 르네상스를 본격화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미래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비전 발표 뒤 이어진 정책현안 토론에서는 이동희 배원예조합장이 나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저온·폭염 피해 예방 을 위해 미세살수장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원을 건의했고 ▲노후 버스정보안내기 교체 지원 ▲저비용 맞춤형 스마트팜 시범사업 지원 등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3000만 뷰 돌파

광주도시공사, 신안 압해 80MW 해상풍력 발전 사업 선정

생산 전기 20년간 판매 권리 보장

광주도시공사는 자사가 참여한 80MW 규모의 신안 압해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2025년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에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관련기사 8면〉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공공주도형으로 추진되며, 광주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가 각각 12%, 한국전력기술이 10%의 자기자본을 출자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이번 선정으로 광주도시공사는 기존 도시개발 분야를 넘어 해상풍력 발전이라는 새로운 사업 영역에 첫발을 내딛게 됐다. 특히 전남개발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광주·전남 상생 발전을 견인하고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정가격 경쟁입찰에 선정된 사업자는 생산한 전기를 20여년간 고정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공공주도형 입찰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와 우대가격 혜택이 부여돼 사업성이 극대화되는 장점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프로젝트가 광주·전남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클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풍력발전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핵심 요소이자 지역경제 발전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신산업이라는 점과 전남이 사실상 대한민국의 해상풍력 생산기지라는 점에서다.

실제로 호남권에 10.6GW 규모의 해상풍력이 들어설 경우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114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신안군은 단일 규모로 세계 최대인 8.2GW급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며,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되면 풍력발전 관련 제조, 건설, 유지관리 등 공급망 전반에서 지역 일자리와 부가가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광주도시공사는 육상풍력에 대한 사업성 연구 용역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전남은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등 초광역 협력 체계를 강화하며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 중이다.

광주도시공사는 해상풍력 사업을 계기로 에너지 전환 시대에 부응하는 친환경 인프라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사업 참여는 광주도시공사가 친환경 에너지원인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본격적으로 도전하는 첫걸음"이라며 "광주·전남이 상생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도, 고령층 디지털 교육

전남도가 고령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키오스크(kiosk·무인 정보 단말기) 활용 교육에 나선다. 전남도는 2일 "'어르신 디지털 온(ON)동네 교육'을 통해 고령층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배움터 전남 지역특화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톡톡, 어르신 디지털 동행, 키오스크 체험존 등 세 가지 과정으로 운영된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배움터 누리집(www.디지털배움터.kr)이나 디지털배움터 콜센터(1800-0096)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중앙신용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